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미생물이야기 2 - 구강 감염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심 영 주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치아 및 치아주위조직의 치료에 익숙하다. 하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상주하는 미생물(microbiota)과 그들의 작용, 상주 미생물이 특정 상황에서 일으키는 감염병,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미생물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구강 감염성 질환에는 익숙하지 않다.

앞선 강의에서 구강내 상주하는 미생물들의 군집과 그들의 유전체를 의미하는 oral microbiome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환자의 증상을 평가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microbiome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것이 환자의 전신건강상태와 치료 결과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강의는 상주 미생물 및 외부에서 침입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 발생시 구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다. 미생물에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이 있다.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지만, 감염병이 발생하면 미생물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세균에 의한 구강 감염은 주로 치성감염, 치주감염 등으로 발현되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 및 관리가 어렵지 않다. 치성감염 이외의 세균, 진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은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나,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게 된다. 연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흔히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여러 감염병 중에서도 microbiota와 관련성이 큰 구강 감염병인 구강칸디다증이 숙주의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microbiome의 역할은 어떠한지, 증상과 징후, 환자 평가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단순포진, 대상포진, 인간유두종바이러스감염의 원인, 증상과 징후, 평가 및 처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학력 및 경력

-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연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박사(구강내과 전공)
- * 구강내과 전문의
- * 현,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구강내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교수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학술이사